

조선 후기 국왕의 幸行時 궁궐의 宿衛와 留都軍 연구

李 旺 茂*

1. 머 리 말
2. 궁궐의 宿衛와 守門
3. 유도군의 편성과 숙위
4. 맺 음 말

1. 머 리 말

조선시대 국왕은 수시로 궁궐과 도성 밖으로 행행하였다. 국왕들은 건국 초기부터 사직과 종묘의 제사, 능행, 원행, 闕武, 사냥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행행을 거행하였다. 그런데 국왕이 궁궐과 도성을 벗어난다는 것은 왕조국가에서 볼 때 상징적으로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왕조국가에서 국왕 그 자체가 권력이며 만민의 상징이었음을 감안할 때 행행은 민인들에게 최대의 관심사였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국왕의 행행이 있을 때마다 觀

光民人이 등장하였으며 이들과의 만남, 대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¹⁾

행행은 국왕의 존재를 신료와 민인에게 대외적으로 나타내는 국가적 정치행사였다. 국왕은 행행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는 물론 왕실의 계승 자임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었다. 그 행행의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궁궐의 숙위문제였다. 행행이 당일 환궁하는 여정이면 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도성을 벗어나 經宿하는 경우에는 궁궐의 숙위를 재편해야 했다. 국왕이 궁궐에 거처하는 상황에서는 법전의 규정대로 숙위체제가 가동되면 되었지만, 행행시에는 숙위의 주 대상인 국왕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인조반정을 비롯한 몇 차례의 정변은 궁궐은 물론 도성의 방비가 곧 국왕의 안위에도 연결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에 행행으로 국왕이 부재하는 궁궐의 숙위는 평소보다 더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중앙군으로 오위체제를 대신하여 오군영이 등장한 시기로서 정파간 군영 군사력 장악이 치열하였다.²⁾ 그러므로 행행에 나서는 국왕은 궁궐의 숙위를 평소와 달리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런 배경으로 본 논문은 조선후기 국왕의 행행시 이루어졌던 궁궐의 숙위체제를 연구하고자 한다. 행행시 궁궐의 숙위체제 연구를 위해 평상시의 숙위체제와 중앙군이었던 오군영 체제를 비교할 것이며, 숙위의 근간인 유도군의 편성에 대해 서술할 것이다. 유도군은 행행이 거행될 때만 편성되는 군병으로 궁궐과 도성을 동시에 방어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행행시 궁궐 숙위의 일면을 보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리라 본다.

현재 조선후기 궁궐의 숙위 연구는 정조의 화성 원행을 기록한 『園幸乙

1) 『승정원일기』 영조 15년, 8월 19일(계사).

김문식, 「18세기 후반 정조 능행의 의의」, 『한국학보』 88, 1997; 한상권, 「정조대 사회 문제와 民訴의 활성화」, 『18세기 연구』 3, 2000.

2) 이태진, 『조선후기의 정치와 군영제 변천』, 한국연구원, 1985; 차문섭, 『조선시대 군사관계 연구』, 단국대, 1996; 최효식, 『조선후기 군제사 연구』, 신서원, 1995.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전임연구원

『卯整理儀軌』를 중심으로 국정운영체제와 숙위체제를 비교하거나,³⁾ 정조대 변화된 숙위체제를 장용영의 설치를 통해 보거나,⁴⁾ 『경국대전』의 숙위 규정과 정조대 숙위체제 강화에 대해서,⁵⁾ 국왕의 율행시 궁궐의 숙위⁶⁾ 등에 대한 연구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으며, 이외에 조선 전기의 금군과 숙위체제에 대한 연구⁷⁾가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국왕의 율행시 숙위에 대한 연구는 어느 한 국왕대를 중심으로 하는 경향이 많이 보인다. 특히 정조의 화성 원행과 장용영 설치에 초점을 두거나 왕권 강화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율행 그 자체를 주제로 다루지 않았다. 그러므로 율행시 숙위에 대한 조선후기 각 국왕별 사례 연구는 물론이거니와 통시대적인 체제 연구도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고는 현종부터 정조대까지를 중심으로 국왕의 율행시 궁궐 숙위체제를 기술하고자 한다. 숙위체제에서도 守門과 숙위군의 운영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율행시 궁궐의 숙위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이 숙위군의 동원이었으며, 수문은 궁궐의 숙위에서 근간이 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본 연구에서 통시대적인 숙위체제를 밝히기는 어렵다고 본다. 다양한 시대적 상황과 각 국왕의 통치술 등으로 인해 일관된 사실을 유추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고는 법전에 기재된 숙위체제를 기본으로 각 시대별 군영등록에 나타난 숙위체제의 사실을 연결하는 방법을 취하고자 한다. 그리고 시대적으로는 현종에서 정조대라는 긴 시기이지만 숙위체제가 안정화되고 개편되는 영조와 정조대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3) 신명호, 「조선 후기 국왕 율행시 국정운영체제-원행유료정리의례를 중심으로」, 『조선시대 사학보』 17, 2001.

4) 배우성, 「정조년간 무반군영대장과 군영정책」, 『한국사론』 24, 1991.

5) 이왕무, 「조선 후기 국왕의 호위와 율행」, 『장서각』 7, 2002.

6) 이왕무, 「조선시대 국왕의 율행 연구」, 『국사관논총』 108, 2006.

7) 박홍갑, 「조선 초기 禁軍과 宿衛체제」, 『조선시대 양반사회와 문화』, 집문당, 2003.

2. 궁궐의 宿衛와 守門

(1) 法典의 숙위와 수문 규정

숙위는 入直, 巡行, 侍衛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입직은 궁궐에 直宿하는 것이며, 순행은 궁궐과 도성 내외를 순찰하는 것이며, 시위는 국왕의 율행시 그 주위를 경계하는 것을 말한다.⁸⁾ 입직, 순행, 시위는 해당 직위에 따라 그 시행 규모와 시간이 약간씩 차이를 보이지만 그 방법은 대체적으로 유사하다. 그리고 궁궐의 숙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守門이었다.

궁궐 숙위의 근간이기도 한 수문제도의 정비는 『경국대전』의 완성기인 성종대에 이루어진다. 수문을 담당하던 수문장이 처음 배정된 것은 예종 원년(1469)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예종 이전의 궁궐 수문은 재위한 왕들의 의지에 따라 별도로 정해졌다고 보는 것이 무방하겠다. 예종때 정해진 수문장 제도는 법전에 그 규정이 정해진 이후, 한때 그 효과가 주장되기도 하지만 조선 말기까지 그 근간을 유지하였다.

궁궐의 수문은 본래 西班 4품 이하가 윤번으로 담당하였는데, 守門將廳이 설치되면서 수문장(종6품) 13명, 수문장 참하(종9품) 23명을 두었다. 이 수문장 36명이 조선 후기까지 큰 변화 없이 궁궐의 守門을 담당하였다.⁹⁾ 임진왜란 이후 경복궁이 소실되어 창덕궁이 正宮이 되면서 궁궐의 수문체제가 변화되지만, 그 형태는 법전의 내용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조선 전기부터 法宮인 경복궁의 숙위는 중앙군인 五衛에서 윤번으로 담당하였다.¹⁰⁾ 이점은 조선 후기 법궁인 창덕궁에서도 지속된다. 오위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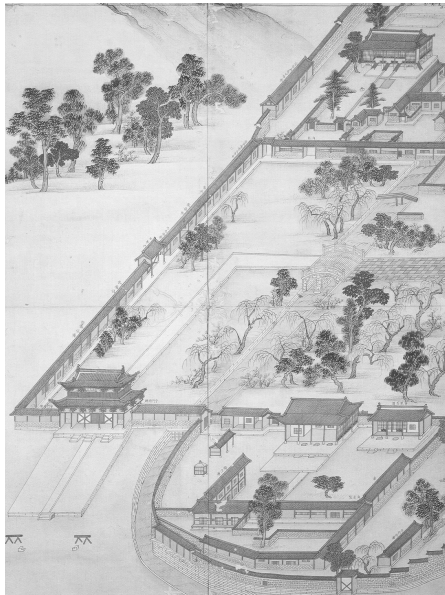
8) 『대전통편』, 「병전」, 숙위조.

9) 『대전통편』, 「병전」, 숙위조. 이후의 기술은 『경국대전』의 숙위조와 비교한 내용이다.

10) 박홍갑, 앞의 논문.

한 감독은 도총부에서 시행하였다. 도총부의 일일 근무 상황을 보면, 도총부의 入直은 당상관과 낭관 각 2명이 서는데, 당상은 標信이 내려올 때 수령하고, 낭관은 날마다 宣仁門과 通化門을 개폐할 때의 검사와 建陽門 동쪽에 있는 번서는 군병 검사를 전담하여 거행하였다. 야간 순찰을 할 때도 건양문에서 여러 곳의 위장, 부장들이 시간을 맞추어 순찰하는 것과 각 문에 대하여 감찰한 뒤 이튿날 사고의 유무를 승정원에 보고하였다. 순찰시에 휴대하는 것이 御牌이다.¹¹⁾ 어패는 본부에 내려주는 패로 두개인데, 하나는 당상관이 坐直하는 곳에 영구히 보관하고, 하나는 申時에 번서는 낭관이 당상관에게 받아 가지고 야간 순찰시 차고 다니다가 다음날 아침에 반납하였다.

<그림 1>에서 수문장청은 돈화문과 금호문 사이에 있으며 오위소는 금호문 옆에 위치하고 있다. 오위의 각 위장들은 衛將所에서 근무하였다. 위장소에는 衛將 15명으로 문관, 음관, 무관의 당상관 3품 중에서 후보자를 선출하여 그중 2명을 彙司衛將이라 칭하고 당해관청의 사무를 주관하게 하였다. 위장 아래의 部將은 25명으로 무신 參上 10명, 參外 14명, 南行 1명인데 내금위를 겸했다. 업무를 보조하는 書員은 衛將外所에 21명, 衛將內所의 네 곳에 9명, 部將廳에 2명, 사령 및 각 名色의 하인은 外所에 18명, 內所 네 곳에 15명, 部將



<그림 1> 창덕궁의 守門將廳과 衛將所

11) 『숙종실록』 숙종 12년, 9월 5일(병술).

廳에 7명이었다.¹²⁾

이들의 입직은 4개소의 위장과 부장 각 1명이 3일마다 번갈아 실시하되, 위장과 부장은 번이 바뀌는 날에 명단을 국왕에게 제출하였다. 受牌는 4개소의 위장소에서 각기 한 개씩을 받는데 번이 바뀌는 날마다 번을 나서는 사람이 먼저 들여놓고 번서는 사람이 뒤에 받아내었다. 부장소에서는 각기 한 개씩을 받는데 이것은 본래 들여놓고 받아내는 규정이 없고 교대하는 날에 번을 나서는 사람이 번서는 사람에게 직접 전하도록 하였다.¹³⁾

숙위 때는 위장 전원이 참가하였으며 부장은 다만 행행할 때에 도로의 정리, 명령의 전달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숙위에 따른 軍號의 수령은 매일 초저녁에 네 군대의 衛將所에서 번서는 부장이 병조에 나아가 군호를 받아서 도총부와 네 곳의 위장소와 각 군영의 번서는 將官, 金軍, 局出身者, 外兵曹에 전하였다. 또한 국왕이 행행할 때에는 分軍 부장 1명이 국왕에게 나아가 군호를 받아 내병조에 전하도록 하였다.¹⁴⁾

숙위에는 일정한 장소에 배치하는 입직 외에 巡更이 있다. 궁궐 내에서는 위장과 부장이 군사 10명씩을 데리고 시간 배정대로 순행하였다. 이들이 수행한 병사의 숫자는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그 시간대는 동일했다. 巡更에는 네 곳의 번서는 위장과 부장 1명이 각각 야간 순찰하는 기병 6명을 거느리고 사령과 兒房直 각 1명이 순찰을 행하였다. 이들은 밤마다 초경 3점 초부터 부장과 위장이 서로 반대편에서 잇달아 출발하여 서로 돌아가며 끊임없이 순찰하였다.¹⁵⁾

예를 들어 창덕궁 東所의 부장이 초경에 출발했다면, 西所 衛將은 같은 시간에 출발하고, 2경에는 南所와 北所, 3경에는 東所와 西所, 4경과 5경에는 南所와 北所가 차례대로 이 방식으로 출발하여 파루를 칠 때까지 하였

12) 『대전통편』, 『병전』, 숙위조.

13) 『대전통편』, 『병전』, 숙위조.

14) 『대전통편』, 『병전』, 숙위조.

15) 『대전통편』, 『병전』, 숙위조.

다. 그 경계는, 동쪽은 통화문까지, 서쪽은 영숙문밖까지, 남쪽은 단봉문, 북쪽은 집성문 밖까지 이르도록 하였다. 이들 순경자는 번이 있는 초일에 시간별로 순경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국왕에게 보고하였다. 이와 함께 부장은 번이 끝나는 날마다, 순찰 상황을 병조에 보고하고, 매일 5일부터 30일까지 도합 6회에 걸쳐 동소와 남소의 당직한 위장과 부장이 궁장 구역을 순찰한 의견을 승정원에 품의하였다.¹⁶⁾

순경에는 화재 및 도적을 방지하기 위해 요령을 치는 군사가 있었다. 매일 광화문의 호군은 초저녁에 병조에서 鑼과 군호를 받은 뒤, 인정이 친 뒤에 정병 2명으로 하여금 방울을 흔들며 궁성을 순행케 하고, 4면의 警守所와 각 문에 차례로 傳授하여 끊임없이 돌다가 파루를 친 뒤에 그치게 하였다. 당시 궁궐에서 시간을 알리는 것은 坐更〔座更〕이라고 하였다. 좌경은 궁궐의 報漏閣에서 징과 북을 쳐서 시각을 알리는 것으로 야간을 초경, 2경, 3경, 4경, 5경으로 나누고, 更을 다시 點으로 구분하여 경에는 북을 점에는 징을 쳐서 시각을 알렸다. 제일 먼저 보루각에서 북과 징을 치면, 근처의 再點軍이 이 소리를 듣는 즉시 북과 징을 다시 울려 차례로 시각을 알리는 것이다. 궁궐의 수문교대식은 물론 숙직 교대도 이 신호에 따라 행해졌다. 이 좌경은 도적방비, 화재예방에 주목적을 두고 사용되었다. 그리고 창덕궁의 정문인 돈화문에는 큰 종을 달아 새벽과 밤늦게 쳐서 궁궐 밖으로 시간을 알리고 20대, 5경 10개였으며, 인명을 사칭하거나 일부러 석방시키면 군법으로 논죄하였다. 巡更과 함께 중요한 건물과 지역은 별도로 伏處座更軍이 배치되었는데, 종친부, 사직, 종묘, 궁궐 등과 각 궁방, 錢穀衙門의 街路는 각각 2명이 모두 건물이 자리 잡은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번을 돌았다.¹⁷⁾

그런데 궁궐의 숙위에서 수문에 대한 규정은 법전에 따라 진행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수문이 제대로 실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단적인 예로 궁

16) 『대전통편』, 「병진」, 숙위조.

17) 『대전통편』, 「병진」, 숙위조.

궐의 숙위체제를 뚫고 들어오는 격쟁인들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궁궐의 수문장들이 숙위체제에 맞추어 움직여도 격쟁인의 침입을 막지 못하였다. 더욱이 격쟁인들은 창덕궁의 정문인 돈화문, 창경궁의 홍화문은 물론 丹鳳門 등을 뚫고 들어와 편전에 인접한 差備門에 당도하기까지 하였다.¹⁸⁾ 문제는 이러한 수문의 허점이 매년 반복된다는 점이다. 심지어 수문장이 추고되었음에도 5~7일 간격으로 재차 격쟁인이 난입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¹⁹⁾

평상시 국왕이 거처하는 상황에서도 수문의 허점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은 국왕의 행행시에는 더욱 더 많은 숙위상의 문제를 야기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더욱이 궁궐문의 개폐를 법전에 규정한 대로 절차에 따라 하지 않고 수문장이 독단으로 처리하는 경우,²⁰⁾ 궁궐 내에서 수문장이 야간 숙위시 흡연을 하다가 巡檢에게 적발되는 경우,²¹⁾ 궁궐의 수문을 무단으로 빼먹은 수문장의 경우²²⁾ 등 수문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는 각 국

18) 『승정원일기』 현종 즉위년, 12월 25일(신해).

19) 『승정원일기』 현종 원년, 5월 20일(무술)과 현종 원년, 5월 25일(기묘); 『승정원일기』 현종 2년, 6월 7일(갑신)과 현종 2년, 6월 9일(병술); 『승정원일기』 현종 5년, 11월 4일(신묘)과 현종 5년, 11월 7일(갑오); 『승정원일기』 현종 13년, 11월 16일(정해)과 현종 13년, 11월 21일(임진); 『승정원일기』 현종 14년, 1월 4일(을해)과 현종 14년 1월 9일.

20) 『승정원일기』 현종 2년, 7월 20일(정묘).

鄭萬和, 以兵曹言啓曰, 例於闕門開閉之際, 都摠府郎廳宣傳官, 親受鎖金, 開金於政院, 與守門將眼同開閉, 乃所以重其事也. 今日通化門守門將, 不待政院鎖金之受來, 徑先閉門, 極爲可駭. 當該守門將, 從重推考, 何如? 傳曰, 允.

21) 『승정원일기』 현종 8년, 4월 14일(무오).

兵曹啓曰, 去夜, 本曹郎廳, 闕內巡檢時, 守門將鄭東美鄭台周, 旗牌官成禮端等, 吸煙見捉, 竝自本曹決棍之意, 敢啓.

22) 『승정원일기』 현종 10년, 6월 12일(계유).

政院啓曰, 卽朝都承旨南龍翼, 槐院褒貶進去時, 目見金虎門守門將闕直, 送言于院中, 招致番次守門將詰問, 則今日乃替直日, 而渠未及入來, 出番守門將, 不待面看徑出, 以致如此云. 闕門守直, 何等重事, 而公然闕直, 誠極痛駭, 頃日以守門將慢不舉職之罪, 請推警飭, 而恬不動心, 今又闕直, 怠習已痼, 不宜歇治. 今日交番守門將, 竝從重推考, 何如? 傳曰, 竝先罷後推.

왕대 마다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왕의 행행 시나 평소 거처할 때를 막론하고 궁궐의 숙위체제는 숙위군의 기강 여부에 따라 좌우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현종대 이후 정착하게 되는 오군영 체제에 따라 군영병이 궁궐의 숙위를 담당하게 되는 이후부터는 수문을 소홀히 한 책임 소재를 보다 분명히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궁궐의 숙위는 법전에 규정된 사항에 맞추어 시대적으로 변화되고 증감되는 시위군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고 생각된다. 숙위를 어디에서 어떠한 무력집단이 담당했는지의 여부를 떠나서 궁궐의 방어를 담당하는 시스템은 법전에 규정된 체제로 진행된다면 큰 문제가 없음을 앞에서 열거한 각종 숙위 규정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법전체제의 숙위 규정과 함께 시대적 상황에 의해 마련된 숙위 병력의 변화가 주목된다. 임진왜란의 여파로 범궁인 경복궁을 위시로 이궁인 창덕궁, 창경궁 등 京城의 모든 궁궐이 왜군에 의해 파괴되고 소실되어 숙위체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 있었다. 그리고 궁궐의 수비나 국왕이 숙위체제 등 시스템의 재정립만이 아니라 散逸된 군병과 인원의 확충이 더 큰 문제였다.

이러한 숙위 문제에 상응하여 등장한 것이 오군영체제와 도성삼군문 체제라고 볼 수 있겠다. 오군영과 도성삼군문 체제는 수도의 방위를 각 군문에서 분할하여 담당하는 체제로 그 근본 목적은 국왕의 안위와 궁궐의 숙위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몇 차례의 전쟁이후 조선 후기 궁궐의 숙위체제가 개편되고 정착되는 과정은 군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2) 五軍營체제와 궁궐의 숙위

오군영은 도성을 중심으로 경기 지역의 방어까지 담당하던 수도 방위군이었다. 임진왜란을 계기로 창설된 훈련도감을 위시하여 인조대 후금군을

막는다는 구실로 만든 어영청, 북한산성 방어를 위한 총융청, 남한산성의 방어를 위한 수어청, 그리고 훈련별대와 청초군을 통합해 설립한 금위영 등이 그것이다.²³⁾

오군영은 임진왜란과 양차의 호란 이후 조선전기의 중앙군인 오위체제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등장했다고 하지만 그 설립의 취지부터 큰 차이를 나타냈다. 어영청은 인조반정의 공신들이 사적인 무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금위영은 당쟁의 와중에서 정파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더욱이 이들 군영병은 모병과 번상제가 혼합되어 있어서 일원화된 통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오군영은 오위체제가 병조판서 → 국왕 등으로 연결되던 군제와 달리 각 군영의 대장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각 당파에 소속되어 있는 형태를 보이는 사병적 성격이 농후하였다.²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군영체제가 완성기에 접어드는 숙종 이후 궁성의 숙위를 오군영에서 담당하게 했다는 것은 이들 군영 외에 궁성의 숙위에 동원할 수 있는 중앙군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무방할 것이다.²⁵⁾ 그리고 숙종과 영조·정조대는 선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군영의 통제를 강하게 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점은 숙종대 삼군문의 설치, 영조대 守城節目的 제정, 정조대 오군영을 장악한 정치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장용영을 설립한 것에서 잘 알 수 있겠다.

그런데 오군영 중에서 총융청은 북한산성, 수어청은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실제로 궁성의 숙위를 담당한 군영은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등의 삼군문이었다. 따라서 이들 삼군문이 중심이 되어 숙종대

23) 김종수, 『조선후기 중앙군제연구』, 해안, 2003.

차문섭, 『조선후기 중앙군제의 재편』, 『한국사론』 9, 국사편찬위원회, 1981.

최효식, 『어영청에 대한 일고찰』, 『군사』 5, 전사편찬위원회, 1982.

24) 김준석, 『조선후기 國防意識의 전환과 都城防衛策』, 『전농사론』 2, 1996.

이근호, 『숙종대 중앙군영의 변화와 수도방위체제의 성립』, 『조선후기의 수도방위체제』, 서울학연구소, 1998, 26~40쪽.

25) 현전하는 사료 상으로 호위청은 그 규모나 실제 활동 사항이 궁궐 숙위에 있어서는 그 활동상이 오군영에 미치지 못해서 제외하였다.

성립되는 것이 도성삼군문 수비체제였다.²⁶⁾

삼군문은 도성을 경계로 경기 지역을 분할하여 해당 지역의 축성과 捉虎 등을 담당하였다. 훈련도감은 개성·고양·파주·가평·연천 등의 경기북부, 어영청은 양주·광주·음죽·용인·여주 등의 경기동남부, 금위영은 김포·강화·안산·수원·남양 등의 경기서남부를 관장하였다.²⁷⁾ 그러므로 삼군문은 도성의 방비는 물론 경기 지역의 방어까지 책임지던 조선후기 중앙군의 핵심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런 배경으로 삼군문이 본격적으로 궁성 숙위를 전담하게 된 것은 영조대에 와서 이루어졌다.²⁸⁾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삼군문에서 궁성 숙위를 전담하게 되는 때는 영조 5년인 1729년 초부터이다. 당시 영조는 孝章世子の 발인 때 궁성의 호위를 삼군문으로 하여금 거행하라고 명하였다. 물론 영조 이전에도 군영에서 발인시 궁성의 호위를 한 적은 있었다. 군영에서 궁성 호위를 담당한 것은 인조대(1624년) 소현세자의 발인 때 훈련도감에서 거행한 것이 시초였다. 그렇지만 당시는 금위영·어영청 두 군문이 체 창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삼군문체제와 같은 체계적인 궁성 호위는 아니었다.

그러므로 삼군문에서 궁성 숙위를 전담한 것은 효장세자의 발인에 맞추어 전담하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²⁹⁾ 물론 영조의 집권 초기 발생한 戊申亂의 여파로 궁궐의 숙위가 개편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도 보이지만 사료상에 분명히 나타나는 부분은 효장세자의 발인 때였으므로

26) 1682년(숙종8) 금위영이 설립되면서 훈련도감, 어영청과 함께 삼군문으로 통칭되었으며 1704년(숙종30) 공표된 釐正廳案에 따라 삼군문체제가 성립된다.

27) 이근호, 위의 논문, 56~60쪽.

28) 조준호, 『영조대 수성절목의 반포와 수도방위체제의 확립』, 『조선후기의 수도방위체제』, 서울학연구소, 1998.

29) 『승정원일기』 영조 5년 1월 21일(병인).

權益淳, 以兵曹言啓曰, 取考曆錄, 則乙酉年昭顯世子喪發朝時, 禁御兩營未及創設之故, 今訓局軍兵, 六月十四日午後爲始, 宮牆扈衛, 十五日發朝後平明, 待標信龍陣矣. 今此發朝時, 似當依此例舉行, 令政院臨時稟旨, 分付三軍門, 何如? 傳曰, 令三軍門依例舉行.

이 시기를 중심으로 기준하였다.³⁰⁾ 이후 1743년(영조 19)의 國恤때에도 삼군문이 지속적으로 숙위를 담당했는데, 당시 훈련대장은 돈화문 밖 창덕궁에서, 금위대장은 금호문 밖, 어영대장은 선인문 밖에서 잡인을 막으며 把守에 임했으며 이러한 시스템은 1757년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³¹⁾

그런데 영조대 정비된 군영의 궁성과 도성 방어 시스템이 안정적이었는가의 여부는 확실할 수 없다. 1760년(영조 36) 경희궁에서 훈련대장이었던 具善行은 궁성의 방벽과 숙위체제의 허술함을 지적하였다. 구선행은 궁성의 營繕을 맡은 자가 草率하게 담장을 쌓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삼군문이 이미 도성의 영선을 나누어 담당하였는데, 궁성은 바로 內城이므로 오군영에 나누어 주면 그 완성도가 높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궁성의 숙위는 오영의 입직하는 군사를 분배하여 守直하게 하며, 매 舖에 다섯 사람이 돌려가면서 1경씩 순찰하여 연락이 서로 잇달아서 밤을 마치도록 경비하고 지키며, 將官은 남은 군사를 거느리고 그 담당 구역 안을 巡回하면 숙위체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영조는 구선행의 의견을 중요시 여겨서 임시변통인 절목 수준이 아니라 병조와 호조판서, 그리고 삼군문의 대장들이 입회하여 궁성을 측량하고 경계를 나눈 뒤에 바로 시행하도록 하였다.³²⁾

이후 새롭게 정비된 궁성 숙위의 한 예로 경희궁에 대한 궁성 파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훈련도감이 담당한 경희궁의 字內는 흥화문 북변에서 출발하여 武德門, 어영청은 무덕문에서 崇義門, 훈련도감이 숭의문에서 흥화문, 남변은 금위영이 담당하였다. 그리고 훈련도감이 담당한 창덕궁의 파수를 보면, 궁성의 1칸은 8명, 2칸은 10명, 3~4칸은 15명, 5~6칸은 20명이 분장했으며, 해당 字內와 도감군은 돈화문 서변에서 明禮門까지는 금호문의

30) 영조가 무신란을 전후하여 각 군문에는 소론 측에서 현종대부터 양성한 군병이 존재할 수도 있었다고 짐작했다면 쉽사리 궁궐의 숙위를 군문에 맡기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31) 『호위청등록』 권3, 정축 3월 26일.

32) 『승정원일기』 영조 36년, 8월 2일(계유).

입직군, 拱北門 서변에서 集春門까지는 廣智營軍, 집춘문에서 通化門 남변까지, 通化門에서 司僕水門 서변까지는 興化문군이 담당이었다.³³⁾ 1733년(영조 9)에 정해진 규례에 따라 훈련도감군의 창덕궁과 창경궁의 외장 순라는 장교 1인과 군병 5명이 초경부터 날이 쌀 때까지 순행하였다. 금위영의 경우는 공북문에서 명례문까지였으며, 어영청은 집춘문 남변에서 通化門, 내사복시 앞 수문 모퉁이에서 동영, 內農圃에서 돈화문 동쪽까지였다.³⁴⁾

궐내의 주야간 行巡을 보면 훈련도감은 건양문에서 歲書閣, 漏局과 摠府의 뒷담에서 光政門과 銅龍門까지, 광정문 북변에서 明光門과 興化문까지를 숙위하였다. 금위영은 공북문에서 명례문까지로 훈련도감과 동일하게 장교 1인에 군병 5명이 초경부터 파루까지 순행하였다. 어영청은 月觀門 동쪽에서 집춘문 북쪽, 집춘문에서 上水門까지였으며 군병수는 훈련도감·금위영과 같았다.³⁵⁾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궁성의 수비가 허술하다는 의견은 각 국왕대에 언제나 제기되던 문제였다는 점이다. 정조 즉위초인 1777년 정조는 병조 판서와 삼군문의 대장들이 궁궐 내에서 更을 나누어 숙위하는 체제에 대해 신칙하였다. 당시 영의정 김상철은 궐내를 巡更하는 일이 소홀하기 짝이 없다면, 五衛將들이 2경 이후로는 더 돌지 않고 있으니 규례에 따라 四所의 오위장과 부장들이 나누어 맡아 번갈아 뚫으로써 중단되거나 소홀하게 될 염려가 없도록 하라고 병조에 신칙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앞으로는 衛將과 部將들이 규례대로 순경하는 외에, 훈련도감과 금위영의 入直將官들로 하여금 각기 그들의 군졸들을 나누어 거느리고 更을 안배하여 윤번으로 순경하게 함으로써 위장 및 부장들과 서로 안팎에서 호응이 되도록 해야 보다 숙위를 엄중하게 할 수 있는 방도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³⁶⁾

33) 『만기요람』 권2, 훈련도감, 『訓局總要』 11 宮牆.

34) 『만기요람』 권2, 훈련도감.

35) 『만기요람』 권2, 훈련도감, 『훈국총요』 11 궁장.

36) 『일성록』 정조 1년, 7월 29일(임진).

이와 함께 궁성의 방벽도 새롭게 영선되었다. 정조는 숙위체제의 강화와 함께 궁궐의 담장을 修築하도록 하였다. 이때 궁성의 방벽은 도성의 사례대로 삼군문이 각기 관장하는 字內에 나아가 거행하되, 수축할 때에는 또한 도성의 규례에 의하여 戶料와 兵布를 劃給하도록 명하였다. 궁성의 수축은 정조가 명을 내린 당일 거행되었다. 정조는 이날 여러 將臣에게 명하여 궁성의 상황을 살펴보고 景秋門 宮牆부터 수축을 시작하도록 하였다.³⁷⁾ 물론 당시 정조가 궁성의 방벽을 수축한 배경은 전달에 발생한 암살사건 때문이었다.³⁸⁾

그러므로 궁성의 숙위는 각 국왕대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새로운 체제가 추가되거나 과거의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숙위체제의 문제점은 통시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숙위군의 기강 해이가 보편적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이 점은 정조대의 숙위체제 개편과 연결해 보면 잘 알 수 있겠다.

(3) 숙위체제의 개편

조선 후기 궁궐 숙위체제는 영조대 오군영에서 수도 京城의 수비를 구역별로 정해 담당할 것을 계기로 정조대에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정조는 부친인 사도세자가 노론 정치세력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자신도 보위에 오르기까지 신변의 위협을 여러 번 겪은 이유로 즉위 초부터 궁궐의 숙위와 국왕의 시위 체제를 강화하였다. 특히 정조는 즉위 초인 1777년 7월 28일 밤 경희궁 尊賢閣에서 신변의 위협을 받고 새로운 숙위체제의 정비를 결심하게 된다.

당시 정조는 경희궁 존현각에서 평소의 습관대로 책을 읽고 있다가 자객

37) 『정조실록』 정조 1년, 8월 10일(계묘).

38) 이 부분은 정조대 숙위체제의 개편을 참고.

의 접근을 알았다. 이에 정조는 금위대장인 洪國榮에게 信箭을 쏘도록 하여 延和門에서 숙위하는 군사를 거느리게 했으며, 三營의 踐更軍은 궁궐 담장 안팎을 수비하게 하고 武藝別監을 閣門의 파수로 세우고 궁궐을 두루 수색하게 했다. 그런데 이런 조치에도 범인은 잡지 못했다.³⁹⁾

다음날 정조는 숙위체제를 바꾸고 거처를 창덕궁으로 이어하고자 하였다. 먼저 궁궐의 숙위는 三軍門의 대장이 수시로 순찰하며, 훈련도감과 금위영 두 營의 入直 將官이 그 군사를 거느리고서 衛將·部將과 함께 안팎에서 야간 검문을 하고, 궁궐 안의 巡更도 四所의 오위장과 부장을 그전의 규례대로 更마다 나누어 배치하여 輪番으로 순찰하도록 하여, 間斷이 생기거나 허술하게 되는 염려를 해소하려고 했다.⁴⁰⁾ 그리고 경희궁은 祖宗朝에 한때의 離宮에 지나지 않으므로 오래 있을 곳이 못 된다는 이유로 창덕궁 이어를 준비하였다. 이때 창덕궁은 수리 중이었고 魂殿이 있어서 정조가 거처를 경희궁으로 한 것이다. 이에 신료들은 창덕궁에 혼전을 마련하고 3년 내에 옮기는 것이 구해질 일이 아니며 숙종도 을묘년 5월에 慶德宮으로 이 어했다가 11월에 이르러서는 창경궁으로 이어하여, 3년이란 것에 구애하지 않았으며 창덕궁 이어를 주장하였다. 이에 정조는 당장 창덕궁으로 이어할 의사를 보이며 영조의 혼전은 文政殿에 옮기고 眞宗의 神位는 爲善堂에 옮기도록 했다.⁴¹⁾

정조의 창덕궁 이어는 2주 만에 거행되었다. 이때의 창덕궁 이어에는 王大妃殿·惠慶宮·中宮殿도 함께 하였다. 정조는 練冠을 갖추고 孝明殿에서 告動駕祭를 거행하였으며, 白布로 쓴 翼善冠과 백포로 된 도포와 띠로 고쳐서 갖추고 창덕궁으로 나아가 徽寧殿에 展拜하고, 明政門 밖으로 나아가 왕대비전과 혜경궁의 輦輿가 이르자 祇迎하여 還內하였다. 그리고 곧이어 창덕궁의 호위 병력을 증가하였다. 주로 훈련도감군이 동원되었는데, 興化

39) 『정조실록』 정조 1년, 7월 28일(신묘).

40) 『정조실록』 정조 1월, 7월 29일(임진).

41) 『정조실록』 정조 1월, 7월 30일(계사).

門의 군사 1백 명을 金虎門으로 옮기어 들이고, 원래 內入하는 군사 1백 명을 弘化門과 崇義門으로 옮기어 들이며, 訓局 출신 45인을 永肅門으로 옮기어 들이고, 東營의 군사 50명을 集春營으로 옮기어 들이며, 西營의 군사 50명을 廣知營으로 옮기어 들이고, 北一營의 馬兵 50명을 南營으로 옮기어 들이며, 新營의 七色軍 40명을 北營으로 옮겨서 숙위 병력의 증강과 시위체제를 새롭게 하였다.⁴²⁾

정조는 창덕궁의 숙위체제를 강화하면서 당시까지 경희궁 존현각에 침입한 범인을 잡아내지 못하던 右捕盜大將 李柱國을 파직하고 具善復으로 대신하였다.⁴³⁾ 그리고 창덕궁 담장의 修築을 지시하였다. 궁궐 담장의 수축은 都城의 사례대로 三軍門이 각기 管掌하는 字內에 나아가 거행하되, 수축할 때에는 또한 도성의 규례에 의하여 戶料와 兵布를 劃給하도록 명하였다. 창덕궁 담장의 수축은 景秋門 宮牆부터 시작하도록 하였는데, 막 賊變을 겪고 냈기 때문이었다.⁴⁴⁾

이러한 정조의 신속한 숙위체제 강화와 궁궐 숙위체제의 개편 때문인지 경희궁 존현각 침입자들이 8월 11일 伏誅되었다. 궁궐이 암살자들에게 침범되고 국왕의 안위가 위협되던 7월 28일부터 보름만의 일이었다. 경희궁에서 정조를 암살하고자 한 일당은 창덕궁에 재차 침입하려다 새롭게 변경된 숙위체제에 걸려든 것이다. 당시 사건의 공초를 보면 범인인 金春得과 田興文 등은 7월 28일 궁궐로 들어가서 姜繼昌이라는 別監과 姜月惠라는 內人을 불러 내부 사정을 들은 뒤 밤에 존현각에 침입했다가 실패하고는 大駕가 還御하였음을 듣고 재차 거사하려다가 守鋪軍에게 잡혔다라고 하였다.⁴⁵⁾

당시 이 사건에 연루된 범인 중에서 掖隸 姜繼昌과 宮人 姜月惠의 가담

42) 『정조실록』 정조 1년, 8월 6일(기해).

43) 『일성록』 정조 1년, 8월 7일(경자).

44) 『정조실록』 정조 1년, 8월 10일(계묘).

45) 『정조실록』 정조 1년, 8월 11일(갑진).

이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강월혜는 姜龍輝의 딸이고 강계창은 그의 조카로 인척 관계인 宮人이었다. 이들의 인도에 따라 자객들이 궁궐에 쉽게 들어 올 수 있었으며 내부 지리를 파악하여 정조의 안전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이들의 가담은 궁궐 숙위의 허점을 나타내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리고 宮人이 가담한 자객 사건은 정조 즉위 초 국왕과 궁궐의 숙위 상태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이들의 공초에서 궁궐의 담장을 호위하는 군병이 밤에는 취침에 들거나 밖에 나와서 숙위하지 않으므로 담장을 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고 하였다. 특히 전홍문 등이 정조의 암살에 실패하고 침입자에 대한 수색이 있자 報漏閣 뒤의 풀 속에 엎드려 있다가 다음날 興元門으로 해서 도망쳐 나오고, 강용휘는 禁川橋로 향하여 水門桶을 제쳐버리고 빠져 나왔다는 내용에 이르러서는 정조 즉위 초 궁궐의 숙위는 물론 국왕의 시위조차 해이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⁴⁶⁾

물론 정조를 암살하려는 무리가 궁궐내외에서 서로 결탁했기 때문에 쉽사리 침입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국왕의 안위를 위협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는 것은 당시 숙위체제에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침입자를 잡기 위해 밤새 수색했음에도 궁궐 내에 잠복해 있던 전홍문 등이 쉽사리 궐문을 통해 빠져 나왔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궁궐과 같은 건축물의 숙위에서 문은 가장 중요한 단속처임에도 침입자에게 쉽사리 뚫렸다는 것은 내통자의 존재는 물론 숙위가 해이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정조는 일련의 암살 사건을 통해 신변의 위협을 감지하고 8월 11일 蔡濟恭을 창경궁 守宮大將으로 삼고 군영의 병력을 동원하여 궁궐 경비를 강화하게 했다. 그런데 궁궐의 호위가 언제나 수많은 군병을 동원하여 엄중하게 숙위하는 체제는 아니었다. 특별한 위협이 없고 별다른 위협 요소가 없는 체제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바로 엄중한 호위체제를 거두고 평상시의 숙위로 변경하였다. 그래서 군영병으로 궁궐을 숙위하게 한지 4일 만인 8월

46) 『승정원일기』 정조 1년, 8월 11일(갑진).

14일 三營의 中軍이 입직한 標下軍을 거느리고서 信地만 파수하고, 삼군의 군병 각각 10명씩을 長官이 거느리고 更마다 巡衛하는 것은 그만두게 하였다.⁴⁷⁾

한편 정조대 창덕궁 숙위군의 지휘체계는 宿衛大將 → 衛將 → 部將 → 수문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숙위대장은 숙위소에서 근무하며 入直하는 군병과 巡邏들의 사고 유무를 매일 보고받고, 3일마다 체대한 단자를 제출 받았으며, 숙위소에서는 該房에 보내어 捧入하게 하였다. 이러한 정조시기 숙위체제는 1784년(정조 8)에 제정된 [監門節目]과 관계가 깊다.

[監門節目]이 제정된 배경에는 정조 자신이 숙위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에 있다. [監門節目]은 정조가 궁궐의 대표적인 숙위인 守門에 관한 절목을 지정한 것이다. 이것은 정조가 즉위 초 직면하였던 尊賢閣에 침입한 자객사건으로 호위의 불안에 따른 강력한 왕권의 확립을 위한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아래는 정조가 지시한 [監門節目]이다.⁴⁸⁾

[監門節目]

본래 坐直하는 승지가 閣門에서 朝夕으로 문안하였다. 그러므로 저녁 문안 후 자물쇠를 청하여 문을 닫고, 아침 문안때 열쇠를 청하여 문을 열었는데, 근래에 이 규정이 없어졌다. 새롭게 만들 규정에는, 열쇠 내주는 것을 좌직 승지가 전담하여 보관하고, 자물쇠를 연 후에는 該房承旨가 주관하여 관장하되, 마땅히 수리해야 하는데도 수리하지 않으면 해당 승지를 의금부에 내려서 중히 감죄하고, 주서와 摠郎, 宣傳官, 司鑰 가운데서 해당 문을 관리하는 사람 역시 攸司로 하여금 勘斷하라. 병조에서 巡檢하면서 자물쇠를 확인하는 것은 본래 職掌이니, 건양문 동서를 경계로 하여 수문장·위장과 함께 같은 죄를 주고, 만일 파손된 곳이 있으면 즉시 와서 고하라. 이후로 성문과 궐문의 자물쇠는 호조 낭관이 감독해 만들어서 판서가 句檢하는 것을 일체 절목으로 만들어 啓下하라. 이렇게 정식하면 도총

47) 『정조실록』 정조 1년, 8월 14일(정미).

48) 『정조실록』 정조 8년, 5월 22일(병자).

부 낭관이 돈화문을 관리하는 것은 아주 의미가 없으니, 선전관이 돈화문을 관리하고, 도총부 낭관은 통화문과 선인문을 관리하라. 각 문의 관할은 건양문 동서를 경계로 한다. 서쪽은 병조의 담당, 동쪽은 도총부 담당이다. 그러나 병조는 이미 쫓겨 각처를 관할하는 형편이니 건양문 동쪽도 총괄하여 감찰해야 한다. 소남문은 단봉문 수문장이 겸하고, 소동문은 선인문 수문장이 겸한다. 각문의 자물쇠에 만일 파손되어 고쳐야 할 곳이 있으면 해당 문의 수문장이 해소 부장을 안동하여 각각 그 字內에 가서 고하면 병조나 혹은 도총부의 낭청이 친히 가서 살피어 승정원에 고한다. 각문을 개폐할 때 감약은 돈화문, 요금문, 단봉문은 선전관이 금호문은 주서가 홍화문, 선인문, 통화문은 도총부 낭청이 담당하되 각 해당문의 수문장 및 담당 사약이 안동하여 거행한다. 각처 水門의 중대한 열쇠를 해소에 보관하는 것은 일이 매우 미안하니, 남수각 수문은 돈화문 수문장이 겸관하고 북수각 수문은 요금문 수문장이 겸관한다.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 ① 各門의 개폐는 옛날 예대로 승정원이 주관한다. 자물쇠를 잠근 후에 열쇠는 坐直 下位가 친히 받아서 司에 보관한다. 그 출납은 자물쇠를 연 후에 자물쇠와 열쇠를 해방 승지가 친히 받아서 보관하고, 申時 이후에는 上直 하위 승지에게 전해 보관하게 한다.
- ② 각문의 관할은 建陽門 동서를 경계로 한다. 서쪽은 서·남 兩所에서 분장하는데 병조의 담당이다. 동쪽은 동·북 양소에서 분장하는데 도총부 담당이다. 수문장은 각기 그 부근에 가는데, 小南門은 丹鳳門 수문장이 兼官하고, 小東門은 宣仁門 수문장이 겸관하는데, 만일 섬가지 않은 일이 있으면 엄법으로 勘處한다.
- ③ 각문의 자물쇠에 만일 파손되어 고쳐야 할 곳이 있으면 해당 문의 수문장이 該所 部將을 眼同하여 각각 그 字內에 가서 고하면, 병조나 혹은 도총부의 낭청이 친히 가서 살피어 승정원에 고하는데 고치는 절차는, 신시 이전에는 해방에서 관장하고, 신시 이후에는 좌직 승지가 관장한다.
- ④ 각문을 개폐할 때 監鑰은, 敦化門, 曜金門, 丹鳳門은 선전관이, 金虎門은 注書가, 弘化門, 宣仁門, 通化門은 도총부 낭청이 담당하되 각 해당문의 수문장 및 담당 司鑰이 안동하여 거행한다.

- ⑤ 병조 낭청 및 도총부 낭청이 夜巡할 때 각문의 자물쇠는 그 字內에 따라서 해당 수문장을 안동하여 살피되, 小東門, 小南門도 일체로 昭檢한다.
- ⑥ 각처 水門의 중대한 열쇠를 해소에 보관하는 것은 일이 매우 미안하니, 南水關 水門은 돈화문 수문장이 겸관하고, 北水關 수문은 요금문 수문장이 겸관하여, 파손된 곳의 수리와 照檢때 살피는 등의 절차는 다른 문의 예에 의해서 시행한다.
- ⑦ 성문과 궁궐문을 잠그는 일은 사체가 중대하니, 지금을 시작으로 해서 자물쇠를 수리할 때에는 호조 낭청이 몸소 監造하고, 판서가 句檢한다.
- ⑧ 각문을 나누어 담당시키는 것이 비록 건양문 동서를 경계로 삼았으나 병조는 이미 쫓겨 각처를 관할하는 처지이니 경계를 정하였다 하여 마음을 놓아서 안 되며, 건양문 동쪽 역시 총괄하여 감찰해야 한다.

위의 내용에서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임진왜란 이후 궁궐의 숙위체제가 당시에는 이미 形骸化 되었다는 점이다. 다만, 그 제도들을 유지하던 군직은 남아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守門制度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 창덕궁 건양문을 기준으로 守門이 이루어지는데, 각 문마다 별도로 수문장을 배정하는 것이 보인다. 이것은 궁궐의 출입을 국왕이 직접 통제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정조가 직접 守門까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그 배경이 있다. 실록에는 [監門節目]이 발표되기 전에 수문에 대한 정조의 불만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수문 군졸들이 通符를 가지고 謁문을 출입하는 사람들의 신상에 대해 병조와 당상에게 보고하는 것을 문제 삼는 점이다. 국왕의 면대자를 일반 관리들이 아는 것을 꺼리는 내용으로 수문을 담당하는 군졸이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또 다른 사항은, 수문장이 단순한 수문의 역할만이 아니라 쫓겨난 단속까지 담당하게 하는 점이다. 즉위 초부터 신변의 안전을 우선시 한 정조는 군기를 항상 휴대하는 무관에 대해 큰 주의를 지녔다. 따라서 이들 무관이 쫓겨난 내인들과 연결되는 것을 꺼려서 서로 말하는 것

을 금하기도 하였다. 결국 정조는 비망기를 내려 수문장 등 궁궐 내의 숙위자들에게 무관이 내시와 내통하여 말하는 것을 단속하게 하였다. 당시 정조는 자신의 신변을 노렸던 李德師·柳翰申·南泰興 등과 李景聃·金壽賢·金應澤·李德秀·閔德泰·韓景勛 등 여러 환관들을 지목하였으며, 특히 무기를 소지하던 무신들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였다.⁴⁹⁾

이외에 정조는 수문장의 역할을 강조하며 국왕의 시위와 궁궐의 숙위를 책임지는 수문장이 외부와 내통하는 행위를 엄금하였다. 그런데 정조의 엄명은 오히려 수문장에 대한 권한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정조대 수문군의 특징은 화약 병기를 소지하였다는 점이다. 임진왜란을 계기로 소개된 조총을 비롯한 여러 화기는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조선군의 기본 병기가 된다. 이점은 정조가 화성에 행차하는 능행도에 잘 나타난다.

화성능행도에는 국왕을 호위하는 군사들의 대다수가 조총을 휴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당시 창덕궁의 수문에서도 조총과 같은 화약 병기를 휴대하였음은 당연하다고 보겠다. 이와 함께 수문군에 있어서, 그 구성 인원이 장용영에 소속되었을 확률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물론 현재까지 사료 상으로 밝혀진 바는 없지만, 정조가 장용영을 설치한 정황을 참작할 때 자신의 친위군이었던 장용영의 내영군으로 하여금 창덕궁의 侍衛를 담당하게 한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이와 같이 임진왜란을 계기로 새롭게 조성된 군영군을 바탕으로 정조대에 정비된 궁궐의 숙위체제는 조선 말기까지 이어지게 된다. 다만 정조가 육성하고 신임했던 장용영이 해체되어 숙위 군병의 변경은 있게 되지만 기본적인 체제는 유지되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조선 후기 궁궐의 숙위는 임진왜란을 계기로 설립되기 시작한 오군영체제와 영조대의 삼군문 수비체제, 그리고 정조대의 숙위 절목 등이 어우러져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⁵⁰⁾

49) 『정조실록』 정조 9년, 5월 4일(임자).

50) 정조대 장용영의 설치가 곧 오군영체제의 해체가 아니라 축소였으며, 장용영이 강화되

3. 유도군의 편성과 숙위

(1) 유도군의 편성

국왕의 행행이 결정되면 병조와 각 군영에서 행행에 참여하는 시위 병력에 대한 내용과 함께 유도절목을 작성해서 보고한다. 유도절목은 행행시 편성하는 유도군의 구성 방법과 배치 현황 등이 포함되었다. 현재 유도절목은 『御營廳舉動謄錄』, 『禁衛營舉動節目』, 『摠戎廳幸行謄錄』을 비롯한 장서각 소장 군영 등록에만 남아 있어서 행행의 한 부분을 담당할 유도군을 살펴볼 수 있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유도군은 임진왜란 이후 조성되었던 5군영의 군병이 윤번제로 하였는데 주로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등 삼군문에서 담당하였다.⁵¹⁾ 이들은 국왕이 도성 밖으로 행행하였을 때 궁궐의 수비는 물론 도성내외의 守門, 街巷과 行廊 後路 등에서 잡인을 엄금하는 역할을 하였다. 먼저 『御營廳舉動謄錄』(권1~12)에서 현종부터 정조대까지의 기록 중 유도절목의 주요내용만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御營廳 留都節目〕

- 유도대장 2인을 선발하여 1인은 궐내를, 1인은 궐외에 留住
- 행행 전날 未時경 유도대장의 領率로 유도군은 信地에 結陣후 즉시 南청이 승정원에 보고

었다고는 하지만 결국 기존의 오군영에서 담당할 숙위체제를 물려받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장용영의 설치가 기존 군영의 청산과 새로운 숙위체제의 양산이 아니라 기존의 숙위체제에 장용영이 가세하여 오군영의 잔재와 중첩적인 숙위체제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겠다.

51) 『御營廳舉動謄錄』 권1, 정묘 8월 11일, 康陵 행행, K2-3344, 장서각.

- 유도군은 행행 전에 궐문에서 도성문까지 좌우의 大小屏門과 伏兵處에 分派
- 御駕가 도성을 벗어나면 移陣 상황을 유도대신에게 보고
- 매일 도성 9門, 궁성 외 軍堡 27처, 도성 내의 巡邏 16牌, 남북 屏門 54處의 把守 보고

위의 유도절목을 보면, 유도군을 지휘하는 유도대장이 2인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1인이 차정되었으며 군영대장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행행 때 도성 부근과 도성 내의 伏兵과 斥候는 유도군이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나머지 사항은 각 국왕별로 큰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거행되었다. 행행 전날 유도군이 집결하는 시각과 형태, 유도군의 복병처, 행행 기간 중 궁성과 도성의 파수 상황 보고 등은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중 유도군의 복병과 관련하여 그 세부사항을 보면, 복병은 모두 11處로 御營軍官 11員 都監馬兵 33인, 군병 165명(어영군 55, 도감포수 110)이 軍官 1원, 포수 10명, 마병 3명, 어영군 5명으로 조를 이루어 진행했는데, 東小門外秋諭, 제기삼거리, 東關王廟삼거리, 守口門外삼거리, 典牲 暑삼거리, 南關王廟삼거리, 焰硝廳삼거리, 西小門外삼거리, 新門外삼거리, 彰義門外삼거리, 都莊洞 등인데 이 중 도장동은 軍官이 아니라 哨官 1員이 배치되었다.⁵²⁾

그리고 이들 복병처에서는 매일 전날 근무사항을 보고했는데 그 보고문서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

[狀啓式]⁵³⁾

外面 承政院 開折 臣 謹封 臣字下着御
 內面 第三貼書我御
 資憲大夫知中樞府事兼御營大將 臣柳

52) 『御營廳舉動曆錄』 권1~12.

53) 『御營廳舉動曆錄』 권1, 무진 8월 16일, 온양 행행.

去夜 宮牆內外各營 宿衛及都城九門城外十處把守巡邏并只無事爲白臥乎事是良
 尙詮次
 善啓向教是事
 大年號 某月某日 時
 南小門 伏兵將 御營廳 哨官 李萬術

척후는 17處로 北岳, 曲城, 鞍峴, 萬里峴, 蠶頭, 渭水室, 伐兒峙, 讀書堂峴, 往十里後峰, 東關王廟後峰, 沙河里高峰, 典農後峰, 芴古至後峰, 鷹峰, 浮石高峰, 院峴後峰, 僧房後峰 등인데 御營別抄武士 17員, 군병 102명(금위군 34명, 도감포수 68명)이 매 處에 軍官 1員, 포수 4명, 금군 2명씩으로 조를 이루었다.⁵⁴⁾

그런데 온행과 같이 국왕이 장기간 궁궐과 도성을 비우게 되는 경우 유도군의 임무는 많아지고 그 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 1668년 8월 16일 현종이 온양에 온행을 가려고 할 때 유도군이 담당한 숙위처와 군병수, 방법 등을 보면 궁성은 물론 도성 내외의 문과 要處를 빠짐없이 파수하고 있다. 그 세부사항을 보면, 먼저 宮牆 외 軍堡 27處에 어영청군과 도감군이 번갈아가며 군병 3명씩 3일마다 贊直하였다. 軍堡 27處는 돈화문 西邊부터 軍堡將(訓局哨官 1員) 1인씩 1~14보까지 매 堡에 포수 3명씩, 돈화문 東邊은 軍堡將(禁衛哨官 1員) 1인씩 1~13보까지 매 보에 금위군 3명씩⁵⁵⁾ 등으로 나뉘어 있었다.

도성 9문은 매 문에 領將 1員과 군병 10명씩 주야 교대로 파수하고 3일에 贊直하였으며 영장은 초관과 軍官이 巡회하였다. 도성 밖 10처의 매 처에 領將, 別馬隊 2명, 軍 10명씩 주야로 파수하였는데, 도성 밖 10처는 彰義門의 삼거리, 弘濟院, 藥田峴, 典牲暑 근처, 伐兒峴, 讀書堂峴, 車峴, 鼓岩, 沙河里, 都莊洞 등으로 오늘날의 검문소 기능을 하였다. 이 도성 밖 10

54) 『御營廳舉動曆錄』 권2, 계유 8월 28일, 齊陵·厚陵 행행.

55) 『御營廳舉動曆錄』 권1, 무신 8월 16일.

處중는 상호 긴밀하게 연락 관계를 가졌는데, 도장동에서 초관이 巡牌로 초경, 2경, 3경, 4경, 5경에 사하리로 傳納하면 차차 전해져서 창의문 복병 장에게까지 오게 되어 보고하였다.⁵⁶⁾ 그리고 이렇게 보고된 전날의 숙위 사항은 해당 군영의 대장이 종합해서 보고하는 체제였다.⁵⁷⁾

도성 내에서는 군관 250명이 閭巷에 매일 밤 좌우포청의 入牌軍官 1員과 巡邏했는데, 도성을 좌우상하로 나누어 左一牌 11명, 上二牌 12명, 下二牌 12명, 三牌 15명, 四牌 20명, 五牌 20명, 六牌 25명, 右一牌 25명, 二牌 20명, 三牌 20명, 四牌 20명, 五牌 15명, 六牌 10명, 七牌 10명, 八牌 15명 등의 조직으로 운영되었다. 이외에 도성의 9문인 남대문, 西小門, 新門, 彰儀門, 北靑門, 東小門, 동대문, 水口門, 南小門 등에는 과수장 9員이 매門에 포수 10, 어영군 5, 금위군 5명씩 모두 180명과 조를 이루어 근무하였다.⁵⁸⁾

이와 같이 유도군은 국왕의 행행을 시위하던 군사에 못지않게 행행 기간 중 궁성과 도성의 안위를 위해 끊임없이 숙위에 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숙위체제는 온행과 같이 국왕이 1달 이상 도성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고된 임무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특히 유도군을 한 개 군영이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隨駕軍兵과 마찬가지로 각 군영의 군병을 혼성하여 편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1759년(영조 35) 영조의 명릉 능행시 유도군 1,690명의 구성을 보면, 어영청 중군1·종사관1·별장1·천총1·騎士將2·초관8, 無軍千摠2·把摠2·초관14, 교련관 12원, 旗牌官 2원, 별군관 9원, 三廳所任 軍官 4원, 어영청 軍官 4원, 출신 軍官 4원, 騎士 103인, 별무사 21인, 出番 別破陣 20명, 京標下軍 543명, 어영청 軍 舊番 三哨 341명, 어영청 軍 新番 五哨 593명 등으로 어영청과 훈련도감

56) 『御營廳舉動謄錄』 권2, 계유 8월 28일, 齊陵·厚陵 행행.

57) 『승정원일기』 현종 8년, 윤4월 2일(병자).

訓練大將李浣, 初二日成貼狀啓, 宮城內外各營宿衛及都城九門, 城外十處把守巡邏, 並只無事爲臥乎事, 啓下備邊司.

58) 『御營廳舉動謄錄』 권2, 계유 8월 28일, 齊陵·厚陵 행행.

의 군병을 혼성하여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⁹⁾

그러므로 국왕의 행행시 궁성과 도성의 방비는 각 군영에서 차출하여 편성한 혼성군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 유도군이 담당한 것이다. 즉 어느 일개 군영이 유도군을 전담하여 왕권을 위협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한편 현종대부터 정조까지 숙위체제에 동원된 유도군은 보통 1,000명 이상을 상회하여 국왕이 도성을 비우는 행행이 거행되면 도성은 군병이 사방에 주둔하는 군사 도시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준다. 다음의 <표 1>은 현종부터 정조까지의 유도군 수치이다.

<표 1>은 유도대장이 유도군을 領率할 때의 기록을 정리한 것이다. 각 국왕별 유도군을 영솔한 자는 어영대장과 같은 군영대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유도군은 군영군을 동원하는 동시에 그 지휘는 각 군영의 대장이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표 1>에서 군영대장이 영솔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1729년 경릉 행행의 한성좌윤, 1751년 명릉 행행의 예조참판, 1752년 의릉 행행의 호조참판, 1753년 건원릉 행행의 행부사직 등이다. 그 중 1751~1753년(영조 27~29) 사이의 유도대장은 흥봉한으로 영조의 신임을 받던 왕실의 외척으로 군영대장이 아님에도 유도대장이 될 수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각 국왕별 행행시 동원된 유도군의 평균적 수치는 1,400여명에 달하고 있다. 물론 최하로 1,102명, 최고로 3,113명이 동원되는 시기도 보이지만 대부분의 시기는 1,400여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능행지의 원근에 따라 병력의 증감이 나타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표 1>에서 동일한 능행지라도 국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영조의 1754, 1758, 1759년도 명릉 행행시의 유도군의 수치도 상이하다. 따라서 한 국왕대는 물론 각 국왕대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유도군의 수치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옳겠다.

59) 『御營廳舉動謄錄』 권7, 기묘 3월 25일.

<표 1> 국왕별 幸行時 편성된 유도군의 수치⁶⁰⁾

王代	幸行 年月日	幸行地	소재지	軍兵數	領率者
현종2	1661년 8월 28일	寧陵	동구릉	1,631	어영대장
숙종3	1677년 3월 17일	崇陵	동구릉	1,396	어영대장
숙종10	1684년 8월 24일	崇陵	동구릉	1,535	어영대장
숙종12	1686년 3월 16일	崇陵	동구릉	1,558	어영대장
숙종16	1690년 8월 28일	徽陵	동구릉	1,880	어영대장
숙종17	1691년 9월 1일	章陵	김포	2,000	어영대장
숙종18	1692년 2월 26일	光陵	양주군	3,113	어영대장
숙종19	1693년 2월 20일	穆陵	동구릉	1,369	어영대장
숙종19	1693년 8월 28일	齊陵, 厚陵	開豊郡	2,622	어영대장
숙종20	1694년 2월 26일	獻陵	광주군	1,356	어영대장
영조5	1729년 8월 16일	敬陵	고양군	1,356	한성좌윤
영조27	1751년 8월 6일	明陵	고양군	1,282	예조참판
영조28	1752년 8월 25일	懿陵	石串洞	1,141	호조참판
영조29	1753년 8월 9일	健元陵	동구릉	1,388	행부사직
영조29	1753년 9월 12일	昭寧園	양주군	2,041	어영대장
영조30	1754년 7월 30일	明陵	고양군	1,301	어영대장
영조34	1758년 1월 25일	明陵	고양군	1,425	총융사
영조35	1759년 3월 26일	明陵	고양군	1,690	어영대장
영조35	1759년 9월 30일	懿陵	石串洞	1,102	금위대장
영조43	1767년 8월 20일	明陵	고양군	1,278	총융사
정조9	1785년 2월 10일	泰陵, 康陵	孔陵洞	1,441	어영대장
정조9	1785년 9월 4일	明陵	고양군	1,425	총융사

<표 1>에서 1693년 숙종의 齊陵·厚陵 능행에 동원된 2,622명의 유도군에 대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東營入直把總 1員·哨官 2員·別馬隊 52명·軍 108명, 新營入直別將 1員·초관 2員·별파진 22명·군 132명, 어

60) 『御營廳學動曆錄』 권1~12와 『禁衛營學動曆錄』 권1~5를 정리하였음.

영청군 2,161명(宮牆 외 군보 27처 군 81명, 도성9문 파수장 9원·군 180명, 북병 11처 將 11원·군 165명, 척후 17처 將 17원·군 102명, 도성내 외순라 16패장·군 320명, 병문 파수 54처 將 34원·군 184명), 훈련도감 군 859명, 금위영군 51명 등 3,391명에서 각 營 입직군 769명을 제외한 2,622명이다.⁶¹⁾

이외에 유도군의 운영 면에서 보면 행행지의 원근에 크게 관계없이 군병의 동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다른 능에 비해 원거리인 경기도 김포에 위치하던 元宗의 章陵, 양주에 있던 세조의 光陵 행행에는 2,000에서 3,000여명의 군병이 동원되고 있지만 이런 몇몇 원거리 행행을 제외하면 큰 수치의 변화 없이 거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국왕의 행행시 궁궐과 도성의 수비는 전적으로 유도군에 의해 좌우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다만 숙종(1692년)과 영조(1755년)대의 광릉 행행시 유도군의 수치가 1천명 이상 차이나고 있는 것이 의문시 되는데, 각 국왕별 능행시 유도군의 증감은 각 시대별 군영의 운영과 비교해보아야 밝혀질 수 있다고 본다.

이외에 이미 언급한대로 <표 1>에서 유도군은 어느 한 군영이 전담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한 군영에서 유도군을 두 번 연달아 할 수는 있었지만 세 번씩은 하지 않았다. 가령 어영청이 연달아 유도군을 하게 되면 훈국·어영·금위 삼군이 隨駕하고 총융청에서 유도⁶²⁾하여 각 군영이 윤번 형태로 유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숙위군의 동원 형태는 행행시 隨駕 군병의 구성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⁶³⁾ 따라서 국왕은 행행시 동원되는 군영의 무력을 자신을 제외한 누구도 좌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었던 셈이다.

61) 『御營廳學動曆錄』 권2, 계유 8월 28일, 齊陵·厚陵 행행.

62) 『御營廳學動曆錄』 권1, 정묘 8월 11일, 康陵 행행.

63) 『현종실록』 현종 9년, 8월 4일(경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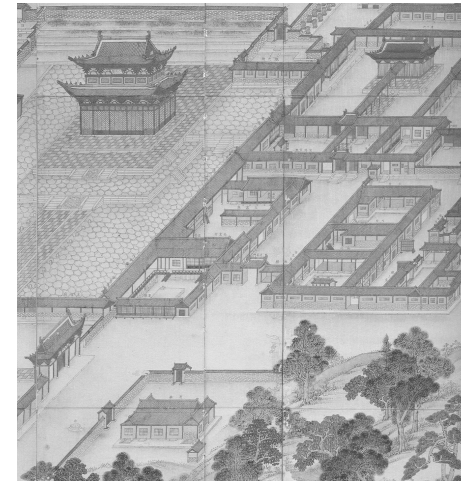
(2) 留都大臣과 留都將臣

국왕의 행행이 결정되면 동시에 궁궐과 도성에 남아 숙위할 留都大臣, 守宮大將, 留都大將 등이 선임된다. 그 중 유도대신은 도성에 남아 군무를 제외한 일체의 업무를 총괄하던 대신으로 정승이 임명되는 것이 일반이었다. 수궁대장은 궁중에 숙직하면서 궁중경비를 책임지던 대장이며, 유도대장은 도성 내에 주둔하면서 京城을 수비하던 부대의 대장이다. 이처럼 국왕이 자리를 비운 궁궐과 도성을 책임지는 자리인 유도대신, 수궁대장, 유도대장은 당연히 국왕의 신임이 두터운 측근이나 외척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행행시 도성 및 궁궐을 수비하기 위한 책임자는 유도대신, 유도대장, 수궁대장이었다. 이 중에서 유도대신과 유도대장은 수도방위를 책임지고 수궁대장은 궁궐수비를 책임졌다. 그러나 이는 별개의 사안이라기보다는 서로 연관되는 문제였다. 수궁대장은 궁궐 내에서 숙직하면서 궁궐을 숙위한다고 하지만, 궁성 밖은 바로 유도대신과 유도대장이 시위하기 때문에 안팎에서 서로 시위하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수궁대장은 국왕이 행행에 나섰을 때 궁궐의 수비를 담당하였다. 국왕의 행행이 밤을 지내는 거동일 때는 궐내에 직숙하였으며 수궁대장이 계차한 종사관 1명은 궁장 내부를 순찰하였다.⁶⁴⁾ 정조대 수궁대장이 창덕·창경궁에 직숙하던 곳은 南所의 衛將房이었으며, 종사관은 部將房, 衛將은 金虎門의 把總房, 部將은 守門將房, 把總은 哨官房에 함께 들어가고, 移接할 때에는 규례대로 標信을 없이 하며, 수궁대장과 종사관은 출궁할 때에 弘化門 안에서 祗迎하였다.⁶⁵⁾

『대전통편』에서는 수궁대장이 숙직할 곳으로 창덕궁의 도총부, 빈청, 남



<그림 2> 창덕궁의 수궁대장 숙직소

소를 지칭하고 있다. 특히 빈청은 정전과 정문 사이의 창덕궁내 중심공간이었으며, 금호문 안의 南所는 창덕궁 밖의 유도대신(유도대장)과 연결되는 중요한 숙위처였다.

〈그림 2〉는 수궁대장의 거처 중 하나인 빈청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빈청은 인정전과 대조전 사이면서 종묘의 산줄기 앞에 위치하고 있어서 창덕궁의 남면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전통편』과 같은 법조문 외에도 1795년 정조의 을묘년 화성 행행에서도 수궁대장에 대한 기록이 다음과 같이 나오고 있다.

“수궁대장 1인을 차출하여 궐 안에서 숙위, 즉 숙직하게 하고 입직하는 衛卒들은 각별히 엄히 다스리며 종사관 1인을 스스로 뽑아 옆에 데리고 다니도록 할 것”

“수궁대장이 입직하는 곳은 남쪽에 있는 衛將房으로 하고 종사관은 部將房에, 위졸의 장은 금호문에 있는 哨官房에, 부장은 금호문 수문장방에 동시에 들어가고 차례가 되어 자리를 옮길 때는 전례에 따라 표신을 제하되 숙직이 끝난 다음에는 각기 자기 자리로 돌아가 입직할 것”⁶⁶⁾

『대전통편』과 정조의 을묘년 화성 원행과 비교하여 창덕궁내의 숙위소를 보면 수궁대장은 남면하여 궁궐의 중앙에 위치해서 사방 문의 숙위를 명령

64) 『大典通編』, 兵典, 入直條.

“城外經宿動駕時 本曹啓差守宮大將 直宿闕內 大將啓差從事官一員 巡察宮牆內”.

65) 『일성록』 정조 10년, 윤7월 13일(갑신).

66) 『원행을묘정리의궤』 권2, 절목.

하고 지휘하고 있다. 또한 시간대를 정하여 순번대로 자리를 옮기고 있어서 오늘날의 경호체제와도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수궁대장과 유도대장의 차이는 다음의 기사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1761년 8월 영조가 明陵에 행행했을 때 궁을 지키는 從事官을 불러들여 말하기를, “衛內에서 시끄럽게 하는 자는 수궁대장에게로 보내고, 衛外에서 시끄럽게 하는 자는 유도대장에게로 넘겨주라”⁶⁷⁾고 하여, 수궁대장은 궁궐 내의 숙위만이 아니라 국왕의 행행 중에 국왕과 至近인 위내에서 발생한 일을 책임지고 있으며, 유도대장은 궁궐 밖에서 발생하는 일과 국왕의 행행 중에 호위 범위의 외에서 발생하는 일을 담당한다고 보면 되겠다.

반면 유도대신과 수궁대장을 지명하지 않고 국왕의 행행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1832년 5월 순조가 延慶墓에 나아가 친히 奠酌하기 위해 動駕할 때는 京舉動의 예로 하였다. 이에 순조는 경거둥이라고 하여 유도대신과 수궁대장을 모두 임명하지 않고 단출하게 행행을 준비하도록 하였다.⁶⁸⁾ 당시 연경묘는 경종의 능침인 의릉 옆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흥인문을 지나 당일 환궁이 가능한 위치에 있었다. 그러므로 순조는 연경묘 행행에 임하면서 번거롭게 유도대신과 수궁대장 등 행행에 뒤 따르는 행정적, 의례적 절차를 생략하도록 한 것이다.

이외에 수궁대장은 평소에 宿衛大將이 그 역할을 담당하였다. 1777년 정조는 궁궐의 숙위를 정비하면서 숙위대장이라는 명칭과 그 역할을 거론한다. 정조는 숙위대장이 이미 궁궐 내부 각 곳의 숙위를 도맡게 되었으니 그 관할하는 방도에 있어서 마땅히 서로 유지해 가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만들었다.

- 衛將·部將·禁軍都監의 군병·각 문의 수문장·局別將과 밖으로는 궁궐 담장 밖에 三營에서 입직한 순라들이 날마다 사고 유무를 숙위 대장

에게 申報해야 한다.

- 위장·부장·內三廳·금군과 金虎門·弘化門·建陽門 將官의 군병 및 局別將·有廳軍 등은 3일 마다 체대한 單子를 숙위소에 내야 하고, 숙위소에서는 該房에 보내어 捧入하게 해야 한다.
- 도총부와 병조는 소속 관사들과는 다름이 있어서 또한 서로가 통지하지 않아서는 안될 것이니, 巡檢하는 등 일로 숙위소에서 거행하는 일과 관계되는 것 같은 것은 숙위대장에게 文移해야 함을 현저한 격식으로 삼도록 하라.⁶⁹⁾

위의 숙위대장에 관련된 사항을 보면 평소 궁궐내의 숙위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왕의 행행시 궁궐의 숙위를 책임지는 수궁대장은 숙위대장의 임무를 대리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수궁대장과 숙위대장은 혹 명칭은 상이하나 동일한 임무를 뜻한 것이 아닌지, 아니면 행행시 수궁대장이 정해지면 숙위대장은 그 동안 그 임무에서 제외되는 건지 등의 의문이 제기된다.

아무튼 국왕의 행행시 선정되는 유도대신, 수궁대장, 유도대장은 고금을 통해 국왕의 신임이 있어야 선정될 수 있으며 이것은 각 국왕별 명단을 보면 쉽게 알 수 있겠다. 다음의 <표 2>는 현종에서 정조대까지 행행지 중에서 유도대신, 수궁대장, 유도대장의 명단을 정리한 것이다.

<표 2>는 현종부터 정조까지의 행행시 유도군을 영솔하던 인물들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주목되는 점은 유도대신이나 수궁대장, 유도대장들의 직위이다. 특히 유도대신의 경우 정승을 지낸 국가의 원로라는 점이 특징이다. 이것은 간접적으로 유도대신은 국왕이 신임하는 인물로 선정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영조대 유도대신인 이태좌, 김재로, 유척기 등은 유도대신에 반복적으로 선정되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67) 『영조실록』 영조 37년, 8월 13일.

68) 『순조실록』 순조 32년, 5월 5일.

69) 『정조실록』 정조 1년, 11월 17일(기묘).

<표 2> 국왕별 유도대신과 將臣⁷⁰⁾

국왕	시 기	행행지	유도대신	관 직	수궁대장	관 직	유도대장	관 직	비고
현종	1662. 9. 9	건원릉	李景奭	영중추			洪重普		
현종	1668. 8.16	온양	李景奭	영중추	金佑明	부원군	柳	지중추	
숙종	1717. 3. 4	온양	李濡	판부사	金柱臣	부원군	李基夏	총융사	
영조	1727. 8.16	송릉	魚有龜	영돈녕	姜覲		李	부사직	
영조	1728. 9. 1	靖陵	張鵬翼						
영조	1729. 2.13	順陵	李台佐	우의정	金始煥	공조판서	張鵬翼	한성좌윤	
영조	1729. 8.16	敬陵	李台佐	우의정	金始煥	공조판서	張鵬翼	한성좌윤	
영조	1750. 8.20	懿陵	趙顯命	영의정	元景夏	우참찬	具聖任	총융사	
영조	1751. 8. 6	明陵	鄭羽良	판부사	徐	좌참찬	洪鳳漢	예조참판	
영조	1752. 8.25	懿陵	金典洞	판부사	趙載浩	이조판서	洪鳳漢	호조참판	
영조	1753. 8. 9	건원릉	金在魯	영중추	金尙星	판의금	洪鳳漢	행부사직	
영조	1754. 8.15	明陵	金在魯	영중추	徐宗伋	행사직	洪鳳漢	우참찬	
영조	1755. 8. 4	順康園	金尙魯	좌의정	申晩	이조판서	鄭汝稷	어영대장	
영조	1758. 1.25	明陵	俞拓基	영중추	徐命彬	전판서	鄭汝稷	총융사	유도대2
영조	1759. 3.26	明陵	俞拓基	영중추	申晦	전판서	鄭汝稷	都正	
영조	1759. 8.28	明陵	俞拓基	영중추	申晦		鄭汝稷	都正	
영조	1759. 9.30	懿陵	李天輔	판부사	李昌誼	판돈녕	具善復	금위대장	
영조	1767. 8.20	明陵	尹東度	영중추	趙明鼎	판윤	金時默	총융사	
정조	1785. 2.10	泰陵	李		趙時俊		李昌運	어영대장	
정조	1785. 9. 4	明陵	洪		李命植	형조판서	金思穆	총융사	유도대2
정조	1786. 2.25	孝陵	金	영중추	李命植	행사직			
정조	1795. 윤2.8	현릉원	金憲	판중추	趙宗鉉	행사직	金持默		
정조	1798. 8.29	敬陵	蔡濟恭	판중추	鄭昌順	상호군	李	都正	
정조	1799. 8.19	獻陵	沈煥之	판중추	洪良浩	대호군	李	행호군	

* 비고의 유도대2는 유도대장이 2명 선정된 것을 말한다.

70) 『御營廳舉動勝錄』 권1~17을 정리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수궁대장과 유도대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수궁대장의 경우 영조대 김시환, 신희와 정조대 이명식이 반복적으로 임용되고 있다. 유도대장은 영조대 장봉익, 홍봉한, 정여직 등이 지속적으로 임용되고 있다. 이중 홍봉한은 정조의 외조로서 왕실과 지근인 인물이기도 하다. 수궁대장의 경우에도 國舅가 맡는 경우가 많았는데, 현종의 은행시 淸風府院君 김우명, 숙종의 은행시 慶恩府院君 김주신, 영조대 홍봉한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유도대신과 유도대장 등은 매일 전날의 궁궐 숙위 상황과 변경된 내용을 빠짐없이 국왕에게 보고하였다.⁷¹⁾ 그러므로 국왕의 행행시 궁궐과 도성의 숙위를 담당한 유도군의 지휘는 국왕이 신임하는 최측근이거나 왕실 인물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⁷²⁾ 이런 배경으로 국왕이 행행에 임해도 궁성과 도성을 안심하고 관리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체제는 역대의 국왕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했던 것이다.

(3) 유도군의 배치와 숙위

궁궐에는 동서남북의 기본적인 4문을 위시하여 동소, 서소, 남소, 북소의 4개 衛將所 그리고 수비해야 할 중요 아문 등 숙위할 곳이 많았다. 조선 전기 예종대의 경우를 보면, 경복궁에 입직한 군사의 수는 2,163명으로 나타난다. 예종이 疊鐘을 하여 궐내 입직 군사를 점검한 결과가 2,163명이었다. 따라서 조선초기부터 평상시에도 이 정도의 병력이 궁궐 안에서 입직

71) 『승정원일기』 현종 7년, 3월 28일(무신).

領中樞府事李景奭, 左議政洪命夏, 領敦寧府事金佑明等, 同日辰時成貼, 宮城內外宿衛無事爲白乎於, 去夜闕內別巡衛將, 則南所入直衛將洪宇 缺外巡將則行副司果李必馨, 行副司果南淑, 監軍則都總經歷朴晟, 兵曹正郎李翊相等, 以差定, 使之受牌分巡爲白乎於, 軍營及各處把守巡邏夜禁等事, 加申飭緣由, 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 詮次善啓向教是事, 啓下備邊司.

72) 이왕무, 「조선시대 국왕의 은행 연구」, 『국사관논총』 108, 2006, 211~212쪽.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⁷³⁾

조선 후기 궐내의 입직군사는 아마도 이 숫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왕이 도성 밖으로 행차할 경우에도 입직군사가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론 조선 후기 법궁이 창덕궁임을 감안한다면 경복궁과의 비교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임진왜란과 양차의 호란 이후 오히려 궁궐수비를 위해서는 입직 군사가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1795년, 을묘년 정조의 화성 원행을 중심으로 궁궐 숙위 상황을 보면, 당시의 수궁대장 趙宗鉉은 종사관과 함께 禁軍, 扈衛軍官, 訓練都監軍士, 局出身有廳軍士, 各門守門將 등의 근무처를 순찰하였다. 화성 행행을 기록한 『원행을묘정리의궤』의 사례를 보면, 수궁대장 조종현은 병조의 省記를 가지고 궁내 각처의 근무상황을 순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禁軍, 扈衛軍官, 訓練都監軍士, 局出身有廳軍士, 各門守門將들이 바로 궐내의 각처를 수비하는 실 병력 및 현장 지휘관들이었다. 이들의 근무 장소 및 각 근무지의 수비 병력은 평상시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

1793년 정조가 화성에 원행했을 때는 도성에 남아 궁궐을 숙위한 군영은 금위영이었으며 유도대장 金持默이 영솔한 유도군의 총수는 2,798명이었다. 그 금위영의 중군이 상변군 1哨 100명을 거느리고 朝房에서 숙위하였으며, 수어청의 수어사도 훈련도감 소속의 군병으로 도성을 수비하던 留營軍 1초 100명을 거느리고 조방에 머물렀다. 이들은 정조가 화성으로 행행한 이후 도성에서 낮에는 궁궐의 각 문을 검문검색하고 야간에는 궁궐의 담장을 순찰하였다.

이러한 전례에 따라 1795년 화성 원행에서도 훈련도감의 중군이 예비병력 1초를 거느리고 창경궁 통화문 밖의 조방에서 숙위하도록 했다.⁷⁴⁾ 1793년부터 1795년에 이르기까지 3년에 걸쳐 시행된 화성 원행에서 궁궐의 숙위와 시위군은 장용영을 비롯한 군영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73) 신명호, 앞의 논문.

74) 『원행을묘정리의궤』 권2, 절목.

궁궐의 외곽 수비는 군영의 중군 이상의 관원이 궁궐 바로 바깥에 위치하는 조방에 거처하며 담당하였다.

국왕의 행행시를 제외한 평상시의 궁궐 각처의 숙위병 근무지 및 숙위 병력은 『만기요람』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다.⁷⁵⁾ 『만기요람』 군정편에 기재된 숙위체제를 보면, 창경궁을 기준으로 궁궐 안의 숙위에는 각 군영에서 선발된 위장과 부장이 각각 군사 5명씩을 거느리고 更을 나누어 巡行하고 있다. 이들은 명례문 안에서 통화문까지 그 숙위 범위를 삼아서 초경에 만일 東所의 위장과 西所의 위장이 순행한다면, 다음 2경에는 남소의 부장과 북소의 위장이 순행하는 순서로 돌러가며 순행하였다.

그리고 궁궐 밖에는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등에서 번드는 초관 1명과 군사 20명으로 更을 나누어 순행하였다. 본래 창덕궁 사방에는 궁을 기준으로 정문인 돈화문 앞에 훈련도감의 分營인 南營, 창덕궁 서쪽에 금위영의 分營인 西營, 창덕궁 뒤 응봉 밑에 廣智營, 창덕궁 集春門 밖에 어영청의 分營인 集春營, 창덕궁 동쪽에 어영청의 分營인 東營 등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등의 삼군영에서 파견된 부대가 배치되어 있었다. 각 군영에서 파견된 부대가 주둔하던 分營은 更을 나누어 순행하였다. 남영은 초경, 서영은 2경, 광지영은 3경, 집춘영은 4경, 동영은 5경으로 하였는데, 보통 2차례 정도 순행하는 체제였다.

이와 같이 조선 후기 법궁인 창덕궁의 숙위는 궁 주변을 에워싸고 있던 오군영에서 담당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궁궐 밖 담장에도 각 군영에서 담당한 숙위군의 주둔처가 20개 있었다. 훈련도감 담당 구역에 6개소, 금위영 담당 구역 8개소, 어영청 담당 구역 6개소 등을 설치하고 있다. 이때 각 舖마다 배치된 군병은 2명이었다. 그리고 훈련도감, 금위영,

75) 『만기요람』은 순조대 작성된 것으로 그 이전 시기의 숙위를 논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오군영과 장용영에 대한 기존 연구물을 검토해 보면 순조 이후 각 군영의 무력이 정조대에 비해 강화되고 증가하는 추세가 아니므로 오히려 『만기요람』에 기재된 군영 관계 자료가 순조 이전에 정비된 군영의 실체를 보다 잘 정리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어영청 소속의 패장 1명은 5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각기 구역을 따라 밤을 새며 순찰하고, 3군영의 번드는 장관 각 1명은 5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罷漏를 칠 때까지 담당 구역을 검찰 하였다. 또한 각 군영의 장교와 군졸 각 1명씩을 선발하여 都巡하게 해서 궁궐의 내외를 삼군문의 군병이 순찰하였다.⁷⁶⁾

이처럼 평상시 궁궐의 숙위체제와 행행시를 비교해 볼 때 숙위 병력의 동원수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점은 나타나지 않는다. 국왕의 행행에 隨駕한 군병이 유도군과의 질적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 행행시 궁궐의 숙위는 평소의 시위 시스템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예측할 수 있겠다. 다만 국왕이 자리를 비운 도성과 궁궐의 경비 태세가 수시로 보고되고 평소보다 많은 군영병이 각 처를 숙위한다는 점이 행행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행행시 숙위체제가 평소와 전혀 다른 형식으로 진행되거나 변경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점은 숙위군 편성의 한 과정인 병조의 省記 작성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각 군영에서 숙위군을 편성하고 조직하는 반면 병조의 소관은 숙위 병력의 선발 및 이들의 근무 날짜를 정하는 省記의 작성이었다.

병조의 省記는 야간암호인 軍號와 함께 야간수비상황에서 매우 중요하게 간주되었다. 군호와 省記는 본래 병조의 省記色이 담당하였다.⁷⁷⁾ 평상시의 군호는 내병조의 입직하는 당상관이 직접 써서 봉합하고 수결을 친 후 낭관에게 주어 申時에 승정원에 직접 바치게 하여 결재를 받았다. 확정된 군호는 궁궐 문을 잠글 때인 해가 질 때에 궁궐 안팎의 각 관청과 각 군영에 배분하였다. 省記의 경우도 낭관이 신시에 국왕에게 직접 바치게 하였다. 다만 국왕이 교외에 거동하였다가 밤을 지낼 때에는 다음날의 군호를 날짜별로 적어 미리 결재를 맡았다.⁷⁸⁾ 이처럼 省記의 작성에 있어서도 행

76) 『만기요람』 권2, 군정편, 巡邏.

77) 『만기요람』 권2, 군정편, 兵曹各掌 事例 省記色.

78) 『만기요람』 권2, 군정편, 兵曹各掌 事例 省記色.

행시 교외에 있는 국왕에게 재가를 받는다는 점을 제외하면 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유도군이 행행시에만 시행하는 일도 있었다. 유도군은 궁궐의 숙위와 도성의 방비와 함께 국왕의 행행시 행렬이 지나가는 곳에 검문소와 같은 병문을 설치하여 잡인을 단속하는 일을 담당 하였다. 원래 도성내의 치안이나 행인의 단속은 포도청의 소관이었으나 포도청의 임무가 느슨해지면서 각 군영에서 책임지게 되어 행행시 병문을 설치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⁷⁹⁾ 1693년 숙종의 제릉 능행시 유도군이 담당하였던 병문의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⁸⁰⁾

○ 동편

於花洞 병문: 군관 2원, 국출신 2인, 군 5명

洪繼寬 병문: 군관 2원, 군 5명

馬前橋 병문: 군관 3원, 군 5명

二石橋 병문: 군관 3원, 군 5명

○ 서편

生鮮前 병문: 군관 5원, 군 10명

壽進宮 병문: 군관 3원, 군 5명

六曹洞口前 병문: 국출신 5인, 군 15명

의정부 남변 병문: 국출신 2인, 군 5명

司醞洞 병문: 국출신 2인, 군 5명

鍾閣隅 병문: 국출신 5인, 군 15명

경복궁 동변 병문: 국출신 3인, 군 5명

夜晝古介 병문: 국출신 5인, 군 10명

大貞陵洞 병문: 군관 3원, 군 5명

西小門洞 삼거리 병문: 군관 3원, 군 5명

79) 『정조실록』 정조 1년, 7월 30일.

80) 『御營廳舉動曆錄』 권2, 계유 8월 28일, 齊陵·厚陵 행행.

대광통교 남변 병문: 금위군 1명
 仇里介 병문: 금위군 2명
 倉洞 병문: 금위군 3명
 전의감동 병문: 금위군 2명
 七間 병문: 금위군 3명

위의 도성 내 병문에 동원된 將軍兵은 159명으로 어영청군이 24원, 군 100명이며 국출신이 24원, 금위군이 11명이다. 그리고 각 병문에 배치된 군병은 15명이 넘지 않으며 대개 5~10명 선임을 알 수 있다. 군병이 15명 이상 배치되는 곳은 六曹洞口前과 종각으로 인파의 왕래가 잦은 곳이므로 당연히 다른 곳에 비해 배치되는 군병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행행시 설치되는 병문은 궁궐을 기준으로 도성문에 이르는 길목까지 주요한 곳에 설치되었다. 병문은 국왕이 행행지로 갈 때와 回鑾시 두 번에 걸쳐 설치되었다. 위의 각 병문이 설치된 곳을 보면, 육조동구, 종각, 서소문, 대광통교 등 주로 행인의 왕래가 많은 교차로이거나 삼거리여서 병문의 설치 기준이 행인의 통제가 용이한 곳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행행시 유도군의 숙위와 배치는 행행 당일과 回鑾시 설치되는 병문을 제외하면 평소의 궁궐 숙위체제와 마찬가지로 도성 각 성문과 성문 밖 군보, 궁궐 내부의 순찰과 궁궐 밖 궁장의 순라 등이 주를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숙위군은 국왕이 궁궐에 거쳐 할 때를 기준으로 정해놓은 숙위처에 배치되었으며, 다만 행행시에는 숙위군의 수치가 증가한 것이 차이점이라고 하겠다.

4. 맺 음 말

조선시대 국왕은 행행을 통해 통치권과 정통성을 상징적으로 인정받았다.

행행은 국왕이 대외적으로 왕실의 적통성과 권력자로서의 통치권을 확인할 수 있는 의례였다. 이에 조선의 국왕들은 누구라도 신체적 문제가 없으면 수시로 행행을 거행하였다.

국왕의 행행은 조선후기로 갈수록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는데, 선대 국왕과 왕비의 능침이 증가되어 나타난 자연스런 현상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건국 초부터 거행된 사직과 종묘의 제사, 능행, 원행, 은행 등은 1년에 몇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배경으로 국왕의 행행은 그 빈도가 높았으며 그에 따라 궁궐 숙위의 중요성도 자주 언급되고 개편될 수밖에 없었다.

궁궐의 숙위는 조선 전기부터 오위에서 담당했는데, 임진왜란과 양차의 호란을 거치면서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등의 삼군문이 실질적인 숙위군으로 등장하였다. 물론 궁궐의 숙위체제는 『경국대전』과 『대전통편』에 기재된 조항에 맞추어 시대가 변화되어도 그 근간은 크게 변화되지는 않았다. 다만 임진왜란의 결과 경복궁이 소실되어 『경국대전』에 기재된 궁궐의 숙위체계가 새로이 법궁으로 지정된 창덕궁에 맞추어 조정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숙위군의 편성도 오군영의 등장으로 새롭게 변화되었다. 오군영은 전란의 영향과 각 정파 간의 이해관계에 얽혀서 설립되었기 때문에 시대별 국왕의 통치 역량에 따라 숙위군의 편성이 좌우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즉 정치적, 시대적 상황에 따라 국왕별로 상이한 통치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숙위군의 근간인 군영의 지휘권 향방도 여기에 맞추어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왕의 행행시 궁궐의 숙위체제는 법전의 규정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새롭게 편성된 숙위군이 배치되는 모습을 보였다. 국왕은 행행시 궁궐 수비의 핵심인 숙위군의 지휘를 자신이 가장 신임하는 인물에게 전담시키는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기존의 숙위체제를 크게 조정하지 않으면서 행행에 임할 수 있었다. 또한 숙위군에 동원되는 군병도 일개 군영이 전담하지 않고 여러 군영에서 차출하는 형태를

취하여 무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였다.

이와 함께 숙위체제는 국왕별로 개편되기도 하였는데, 그 주요 원인은 숙위군의 기강 해이와 궁궐 침입 사건 때문이었다. 특히 정조 즉위 초기에 발생한 경희궁 자객 사건 때문에 제정된 「감문절목」은 궁궐의 숙위체제를 새롭게 만든 것으로 조선 말기까지 유지되는 체제였다. 결국 국왕의 행행시 궁궐의 숙위는 법전의 규정을 기본 바탕으로 국왕별로 개편된 체제가 동시에 운영되는 모습이었다고 하겠다.

(원고투고일 : 2007. 2. 21, 심사완료일 : 2007. 3. 20)

주제어 : 幸行, 궁궐, 宿衛, 五軍營, 경국대전

<ABSTRACT>

A Study on the Security of Palace when during the King's Parade in the Late *Joseon* Dynasty

Lee, Wang-moo

This thesis is to study of palace security system, when during the King's Parade in late *Joseon* Dynasty. As we know the Kings parade is very symbolize, and visuality, mobilize. And that King's Movement, is called *Hanghaeng*(幸行), this movement belonged Korea and China's the part of ruler system. It just happen like Ritual action, therefore it makes people believed, the Royal class was been long period in father land. And therefore, there is no one doubt about Kings power and exist. It happened every each Kings period in *Joseon* Dynasty. People simply depend on there own eyes. Those rituals had massive significance in the administration of state affairs, in which the King, the subjects, and the commoners participated together. It was happen all the time in Kingdom of confucian, we called *Joseon* Dynasty. Royal Ceremony is very fixed to continue forever. The one of the best ceremony was the parade of Kings. The Kings parade, it's highest ritual action in Kingdom of confucian society. The Kings security system in palace, when during the kings parade, it based on the *National Law*(經國大典; 大典通編). In the law was to organize soldiers in palace.

In the 16th century, the Japanese Forces invaded the *Joseon* Dynasty. And 17th century, the *Manchurian* Forces invaded the *Joseon* Dynasty. Therefore the National Defense System was changed. Also Kings and Palace

Security System were changed, too. The new military strategy was based on China, especially the tactical manual *Jixiaoxinshu*(紀效新書) written by *Ji-Guang*(戚繼光). And basically in those new military manual to suggest a new way of security system, when King's Parade in palace. According the new military strategies, that makes new military camp, we called *5 military camp*(五軍營). And the Kings and Palace security system support by those military camp during the period of late *Joseon* Dynasty. In those time, about 1,400 soldiers of new 5 Military Camps were guarded during the Kings parade. The new security system's regulations were established in the period of King *Yeongjo*(英祖) and *Jeongjo*(正祖). King *Yeongjo*(英祖) made circle of security system in capital city by 3 Military Camps(都城三軍門體制) and *Jeongjo* made the New Security System of Palace(監門節目). However, the Kings and Palaces Security System was not just followed new military strategies, Basically the new system still based on the National Law. Usually since the King's Parade displayed in late *Joseon* Dynasty, and also security of palace system was not changed from the *Jeongjo*'s period. Because the King's Parade was an assembly system with Royal ceremonies. And it was ritual thing, not just King's played. As we know, ritual is most powerful thing in human society, and most King's power depends on that, also the King's political power proceeding and make more powerful hands. After all, the Kings and Palaces Security system organized in 18th century, which based on the National Law system, it continued until the end of Lee Dynasty.

Key Words : *Hanghaeng* (幸行), Palace, Security System, *Five Military Camp* (五軍營), National Law (經國大典)